

두치녀는 다시는아모말도하지안코 다갓치머리를숙이고 제각금제생각에정
 신을일코안져있다 아태총에서는응접실시게가 열번은「째」 「」 하고
 천다 영자는홍분되엿든마음이 저육이쌀아지매 다시머리가압하지기시작한
 다 그래서이마를찜흐리고 어름주머니를더듬는다 사라는 열혜노여잇는어
 름주머니를집어 영자의머리에올여노아준다 영자는 주머니를바로잡아노코
 나서 그만눈을스르스감고만다 사라도역시 영자를조금재우리라하여 다시
 는아모말도못지안이하고 고요히몸을일어 자리웃을갈어입기시작한다 열이
 여잇는창을가마니닷고 영자의괴색을살펴보니 발서잠이깊흔듯하여 고힘숨
 결만식나 하고들일뿐이다 머리맞혜는영자가일상에독하는 시집한권이되
 는대로펼쳐있다 사라는 그시집을주어무심코펴본다 거기는조금안조희조각
 이하나꺼여잇고 그우에는아마영자가지은듯하야 시도두수가씨워있다 사라
 는일종호괴심이일어나서 그것을씹아입어본다

⑦ | 빈산에 날져물

푸른입에 낙화지니

삼춘에 조흔경도

하마어이 지단말가

못노니 우는두견

너는 무삼심사잇서

숨결것흔 이생길을

누를밧고 가잔말가

뜻애기여 우는너나

남못잇는 내경사나

애뜻이는 피눈물은

네나 내나

七.....二

사라는적々히혼자안져 영자의잠든얼굴만 물그림이들여다보고있다

「아! 아 불상한동모여...」

사라는 다시채상압호로나아가 「환영의애」를씹아들었다 아모리읽으려하여도

「... 못노니우는두견 너는무삼심사잇서...」 가다시금재롭게 머리가운대

떠올나오며 공연이마음이산란하여진다 사라는그할애귀를입속으로외이다가

기름게한숨을쉬다

「아! 아 이것이 이거치른세상을지내여가는 일생의행노로구나!」

사라는 영자의고요히잠든얼굴을 또한번물그림이들여다본다

그얼골에는 아모근심도업 아모슬픔도업다 또아모격분도업다 오직고요
 한호수갓치 온화한봄날갓치 잔々하고도싸듯한순결만 잔々이흘어나올뿐
 이다 어스름한밤빛조차도 영자의순결갓치 잔々이흐너가는듯하여 영창에
 비최인희미한 아싸싸야입그림자까지도 조금씩／＼흔들이고있다 사라는이
 우리저가는남은달빛을 애처리이역여저등불도싸바리고 입새이로너들어오
 는푸른귀우만 정신업시바라보고안져있다 어대서론지청아한노래가 잔々이
 나무입을흔들고지내가는 산々한바람결을살아 사라의물살뜻하는이마를지나
 방안으로흘너드러온다 사라는그노래소래에 귀를기우린다

푸른입해매천이슬은
 반작이며웃고잇는때
 나는홀노넌뜰에서
 누를차져해매이나
 이내마은라는빛을
 저달빛에언저스면
 곱게잠든나의애인
 가삼에다전하련만은...

사라는외로운이마처전귀에 부드친갓치 찌르々할을늦것다
 「그사람도역시나와갓치 쓰린지경에잇는게다」
 말을맛치고나서 다시희미한달을바라본다

「아모래도 목소리가그이갓흔대...」
 사라는가삼이몹시두근거리며 귀박귀난불을담어다붓는듯시 확근확근하여진
 다 외로운다시한번 찌르々하고결이다 창틈으로새여드러오는 산들／＼한
 바람결에는 아직까지도무슨김이혹근／＼하는듯하다 사라는고요히잠든 영자
 의얼골을 흠시하는것갓치감안이들여다보니 희미하달빛해 더욱창백하여되이는
 얼골은 무엇을말하는듯／＼하다 밤빛은한층더조요한대 외로운방안에는형용할
 수업는 무슨싸듯한귀운이가득한듯하다

사라는떨이는가삼을 진정할수업서 그대로폭업드러져바리고만다 가삼은한층
 더떨이기시작하며 자기의맥박소래가 자기의귀에도들이는듯하다 그노래는아
 직까지도흔치지안은듯하여 흘너드러오는바람결에 다시한귀절이찌드러온다
 ... 불길갓흔내숨결이
 슬々부는바람이되면
 님의창압지내치며
 고흔모양엿보련만...

사라는 안타까운 정회를 억제하기 어려워 자기의 첫 가슴 힘껏 부딪기여 안으며 몸을 한번 흔들고 나서는 고개를 드러방안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 방안은 여전히 고요하고 다만 영자의 순결만 오르락내리락한다 사라는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이 몹시도 보고 싶었다 그 사람도 자기를 기대리고 잇스리라고 생각했다 누가 자기를 끌어안은 듯이 한 거름에 뛰어나오고 싶었다 사라는 참다 참다 못하여 쉼이 는 다라를 어지러 잇살고 감안이 일어나서 혹시 영자를 깨울서라 하여 감안감안 이 말을 읊기여 늦는다 그러면 다리는 점々 더 쉼여서 조금도 걸어 갈 수가 없다 사 라는 죽을 힘을 다하여 겨우 문턱까지는 걸어 왔으나 다시는 문을 열 힘이 없다 그 대로 펼쳐 주저안는다 사라는 그 소리에 기절을 할 듯이 놀내이며 영자의 동정을 다 시살펴 본다 아직 셋잠이 기쁜 듯하여 영자는 조금도 움직이지 안이 한다 사라는 다시 몸을 일어 문을 감안이 연다 제일 난관은 무사히 버서났다 노래 소리는 또 한 귀절 찌드러온다

.. 사랑하는 내의 애인

고요하게 숨실찌

나는 홀노 헤매이며

이 노래를 불으노나...

사라는 극도로 흥분되어 지금은 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엎드러지는 것까지

영청으로 갖가이 가서 재여 들어오는 달빛을 이용하여 박계 동정을 살펴본다 밤 은 몹시고요하여 무엇 할 것 업시 모다 푸른 달빛해 고요이 잠기여 잇고 음 직이는 것이라 고는 잇다 금불어가는 바람결 박계 업다 사라는 다시 창문을 소리 나내려왔다 그러나 누가 보는 듯 보는 듯하여 짐그림자에 몸을 바싹 붙터섰다 이 슬을 먹음은 햇빛재이로 다름질 하듯 시끌어 간다

살이 들여다 봐이도록 엮은 침의는 삼에 흥상 저々 바려서 거름을 걸을 때 마다 부 들부들한 영분다리에 아름답다 운운관이 들어났다 감최였다 한다 문듯 저편 잔디밭 우에서 발자최소래가 나는 듯하니 사라는 급히 나무그늘 속으로 몸을 숨기고 걸어오는 사람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 보았다

「오— 오 그이다 그이다 노래 불으든 사나히다」

사라는 그 사나히의 얼굴을 보니 사 원몸이 마디마디 녹아 버리는 듯하여 저도 모르게 엮헤 잇는 나무를 힘껏 썩끼여 안는다 그 사람은 점々이 편을 향하여 걸어오면서 밋천 듯시무엇을 혼자서 입속으로 중얼거린다

「사라씨 당신은 내 괴로움을 아시지 못하시겠지요 나는 밤마다 밤마다 당신을 이렇게 차져오는대... 오! 오 애인이여 당신은 이 몸에 괴로움을 모르시겠 지요...」

失戀의 淚

사라의 다리는 부르르 떨리며 숨이 막힐 듯하다 그래서 나무땃호로 퍼 넣혀 주저앉는다 그 사람은 찜찜 놀나 이편을 바라보다니 고만땃철드기 뛰여오며 힘업시내 여미는 사라의 손길에 뜨거운 입술을 한입 시대인다

「오! 나의 애인이여!」
그 사람의 목소리는 몹시 떨린다 사라는 야모리 말을 하려 하여도 가삼이 울렁거리며 목소리가 나오지 안이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가삼에 안긴 채로 입술만 췌죽이 내여민다 그 사람도 역시 입술을 마조 췌죽하게 내여민다... 입술과 입술이 서로 마조칠 그 순간에 사라는 겨우 입을 열어 떨이는 목소리로

「사랑하는 선생...」
두남녀는 다시아 모말도 못하고 할췌서로 췌안었다 사라는 자괴의 외근 몸이 사나희에 가삼속으로 녹아들어가 가는 듯하였다 | 설는 듯한 입김과 입김 불췌갓흔 키스 포옹 췌별 갓흔 사랑 두남녀는 다시 몸을 일어 진주로 췌여 노는 듯한 푸른 잔디밭우으로 대리석 갓흔 말길들 음기기 시작하였다 두 사람은 언뜻 넓은 못가에 다다랐다 잔々 하물결은 희미한 달빛을 쌀아 식검은 나무그림자를 각 구로 빗쳐여있다 두남녀는 언뜻가 에잇는 조곰 안바위우에 몸을 걸드렸다 그사람은 입을 열어 먼저 말을 근넌다

「나는 당신을 무한히 사랑합니다」

이 단순한 말이 사라의 가삼에는 더할수업시 만족하게 들인다 사실이 보다 더 자세히 이 사랑을 설명할말은 다시 업스리라고 생각했다

「나도 선생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는 이 몸을 선생께 바친지 오랫동안이요」
사라는 말췌말췌한 눈을 들어 그 사람의 얼굴을 췌리지도 록 바라본다 두남녀는 다시 설갓흔 키스는 멧번인지 또 교환되었다 사라는 췌삼스럼게 수절은 생각이 들어 자괴의 몸을 그 사람에게 킅기대며 어린애 갓치머리를 그 사람에게 가삼에 비비며 웃는다

그 사람은 사라의 가늑한 허리를 지긋시 췌안으며 웃는다
「자! 우리 저물에서 몸을 췌끗하게 췌습시다」
「그럴까요...」
두남녀는 어깨를 껴고 물노걸어들어간다 그 사람은 약가 모양으로 청아하게 노래를 부른다

...사랑하는 우리들이

서로 안고 춤출때

희미하게 걸인 달만

우리들을 비취이네...

사라는 무엇을 원하는 듯한 눈으로 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며

失戀의 淚

「우리는 일상시켜나지 말고 이리케살아가요」
사라는그사람만치여다보다가 돌에걸이여그대로물속으로쑥잠겨들어간다 사
라의몸은 어니듯못바닥(池底)에탁부딪친다 사라는넘오도놀나「앗」하고외
마디소리를질냈다

사라는도모지꿈같지않었다 그보다도꿈이라고해석하기는넘오도애씩하였다
사라는자괴도모르게 가슴속에깊히감춰어잇든무엇을 꿈으로비로소새달은듯
하여 다시새로운번민이일어난다

「대답이나들어보고내엿드면……물론박사도」사라씨 당신과써남은 목슴과
써남이나일반이지요」하고대답하여슬터이지……」

「사라아직셋자지안으셔요?」

영자도연으듯내여 사라의번뇌하는모양을보고물어본다 사라는자괴꿈을 영
자가모도바라보고잇든듯하여 공연이얼골이붉어진다

「꿈을내여서……」

「꿈? 무슨무서운꿈이애요」

「안이요 너머도똑똑하여꿈같지안어요 나는……」

………치안으면 오날밤꿈도「꿈이라는것은 참허무한일이애요」하며웃
게지만은 사라는처녀의몸으로 그갖흔말은참아입에서나오지안이하야 그대

로뒤를미끄러드리고한다

「그러면 엇던꿈의애요?」

「뉘별노……그런대꿈과현세에는 엇던관계가잇슬까요」

사라는 꿈이야기를피하노라고 썬문제를끄러내인다

「꿈과이세상하고요?」

「네! 꿈이라는것이 현세의그림자일싸요 현세가꿈의그림자일싸요?」

「그것좀어려운문제데요……」

영자는눈을감고 한참동안이나 무엇을생각하고잇더니

「나는이세상에서 이모양으로 누어잇는내자신까지도 의심이생기니싸 내
생각갓해서는 이세상이꿈의그림자갓하요 단지영혼이라는불가사의한무엇

이엇던알수업는이상한곳에잇서서 현묘한무슨작용을하고잇는것이안인가하

오」「글세그럴싸요……」

사라는 이것이본시자괴의못고저하는것이안이라 그역시어림껏시대답해버리

고 머리속으로는 썬생각만한다

「아! 발서네사애요」

「네! ? 네사애요」

선々한새벽바람한줄기가 말엽시불어와서 말엽시누어잇는 두처녀의얼굴을

失戀의 淚

사치고 지나여간다

八.....一

불갓치뜨겁든하날도 이삼주일전부터는 심희색구름으로 가리워버리고 날마다 정해노은드시 한두차례는 의례히비가 내린다 그러치안어도 습속에 싸여잇는 듯하야 침음하기한량이업든 S학교괴속사는 벗도 잘비치지안이하여 간곳마다 미청색공행이가 발생하기시작하며 괴속사전체는 마치푸른물속에 잠겨여잇는것갓치 음심한괴운만가득하여 소회불양으로 괴로워하는학생이 날노 그수효가늘어간다

조금간강을회복하였든영자도 몸이짓썩두두하며가삼이을을하여 교의에게진단을청하였드니 신경이매우쇠약하야 극도의빈혈증에걸이엿다고한다 혹시폐병에조짐은업느냐고 마음에걸이여물어보와스나 그런중후는조금도업다고 하며 그리간강한몸은안이니사 일후에혹시엇더할년지는 보종할수업다고 교의는한마디주의을더하여주며 공기가청결한곳에서 매일멧시간씩운동을하라 고권한다 그리하여영자는 매일일정한운동을마친뒤에는 도서실에게요히안저 책이나뒤치며 음을한날을보내고있다 영자는한번인환이와의 관게가식어진후로부터는 이세상이무엇인지 또는인생이라는것이무엇인지를 해석하려고여러가지로 마음을수고로이하고있다 그래서요새는철학 종교갓흔것도

더러읽어본다 그러나생각하면생각할수록 점점삭막하여만져서 엇던때에는 눈멀건이 하날만바라보고안졌다가 선생을치여다보며이런말도물어본다

「인생이라는것이무엇일까요..... 그리고무엇을의미할일까요?」

「너는그런책을읽지말나고해도 또읽는게구나 인생이라는것은오직「마음」

이다그마음을가라쳐 우리는그것을인생이라고불으는것이다 어서그런책은

접어치우고 시집갓흔거나읽어라」

오선생은 그럴때마다 영자의신상을염여하여 그갓흔책은읽지말나고권한다

그리는동안에 하괴휴가는 시작되엿다

그리저리하든장마도 이제는꺼이고말여는지 오날은멧주일만에처음으로벚이 나서 「그새좀서늘하게지내스나 그대신그만큼더워보시요」 하는듯시 불갓치 내려쫓인다 원세상은견백쓰렌스의초침에되여잇는것갓다 괴속사엽헤잇는초

가집집웅에 쉼족々々소사나오든 늙은여승에머리갓흔힌버섯도 차차로고개를숙이여일광보살(日光菩薩)에게 예배하는듯하드나 어늬듯흔적도업시사라

지고 멧해동안중병으로신음을하든 사람의얼굴과갓치 뼈만남은정웅에서는연괴갓치썩어안김이 무력々々그여을나오며 바작바작타들어가는듯한소리까지

도 귀에들어오는듯하다 사라는비뒤에맑은경치를 거두기위하여 산뜻한물빛(水色)양복에 벗흘가리

失戀의 淚

기위하여 전났은대패밤모자를 눈섭사지폭늘너쓰고 뒤잔디밭을향하여걸어 간다 언제옴기여심엇는지 밭서썩리가부터누른빛은조곰도업고 논전체가코 혼필육을마전하여 노은듯시가지런하여 혼혼한바람이불어갈때마다 푸른물결을차차로멀이전하여간다 나이는오륙세나덜막말낙한 고마큼고마큼한어린 아해사오인이 코를출적어리며 저고리도버서바리고 무엇을잡는지뜨거운뱃 아래서 조금안손에체와병을하나씩가지고 비뒤에새로흐르는 저근개울에서 찰박어리며 돌아닫이 고있다

「비가개엿스니 오날은퍼더올터이지」

사라는들을사람도업는말을 혼자중얼거리며가지런이조아올나온잔디밭을 달도그리고해도그리며 혹은비뒤에괴여간 비용이혼적가튼곡선도그리며 이리저리왔다갔다한다

「집에가면또귀치안을러인대……아버지는 왜회답을안해주실가 어서회답이 와야가서그림도그리고 영자의병도좀조리할터인데 그리고은숙이도좀만나 보고……그후부터는오선생님도 일절아모말삼도하지안으시니 아마자각하기를기대리시는모양이야 원엇저면조란말이고 집에를가자니 가기가실코 여괴에잇자니선생님보기가어려워 오날썸은편지가올터인데」

사라는 이가리혼자못고 혼자대답하며 그리려든스켓취도그리지안이하고「이

리온다」 「거기간다 그들아래로들어간다」 하며 썩드는아해들편만바라보고 서있다

「언이 왜그러케우두먼이서잇서요」

숙자는 무엇을손에들고나오다가 사라의서잇는것을보고뛰여오며말한다

「개들이 하도썩들기……」

「언이 해주서편지가왔서요」

「어디?」

사라는 반기여봉한것을뜯는다 그속에는싸로봉한편지가 또하나들어있다 사라는 「혹시또……」 하며 눈쌀을썩흐리고들여다보드니 자괴의생각이넘오도 지나천길을 혼자웃는다

「이것은어머님이 숙자에게하신게로구려 나는또그이가한것인가하고…… 하! 하」

「뭐내게요?」

숙자도김버하며 편지를썩난다

「아이고 이돈은왜보내서슬싸요」

숙자는이상이역이며 여전이가속하여읽난다

「언이 이번에집에가지지안어요?」

사라도편지를읽고있다가 숙자의말에비로소 머리를들며

「왜요 내가가지안는다고했소」

「네! 이번석왕사로피서를간다고하셨는대요 그리고형은피서를가니 네가 내려왔다가라고하셨소요 이돈은노자라고요」

「영자도몸이편치안어하고 나도또좀무엇하기 이번석왕사에나좀달겨올가하 고 아버지에게편지를했드니 그래서그리진게구려」

「그럼 이번가세요?」

「네! 아버지도일잔을나오사겟다고하셔스니 그뻘뻘해서떠나겟소」

「아이그럼나는안갈테야 자대야언이도업시혼자서 무삼자미로...」

「하! 하 어머니뵈이려가며 혼잔못가우반쪽이라도갈터안대 혼자가기실 커든 귀속사에서 한두어명씩여데리고가구려」

「아이그 언이는가다가도별소리를다하시네 썩긴뿔썩어요 사람도썩어데리 고단기나요 내가혼자가기실타는게안이라 언이가업스니싸말이지」

숙자는고개를웃하고 시침을뚝뚝인다 사라는우스며숙자의손을잡아흔든다

「하! 하 내가잘못했소 자! 들어갑시다 숙자도짐을싸야지 그대도형이 동생을떠내보내고야 나도떠나지 혼자선못갈가뭇야 나도곶돌아올터인데 그리고영자에게이런말이나전해주면 여복조아하겠소」

「그럼나도언이알아 석왕사나갓스면...」
「요다음...」

두치녀는손목을마주잡고 귀속사로돌아간다 사라는 도서실문을감안이연다 그리고 목을감안이내여말고 방안의동정을살펴보니 영자혼자안저서무엇을 쓰고있다 막뒤어들어가눈을가리라고하는데 누가뒤에서억깨를탁치고지내여 간다 사라는얌작놀나돌아보니 오선생이지내여가며웃는다

「크단것들이 작난은더하누나」

사라는붓그려운듯이 얼는뒤어들어간다

영자는 우스며들어오는사라를보더니 자괴도의미업시쌀아우스며

「왜발서들어오시우 방금숙자가와서어디갔느냐고묻기에 뒤잔의뺏헤갓다고 했드니 그리로차자간다고갓는대요」

「네 만나봤서요 집에서편지가왔다고가지고나왔서요 그런데그건또뭐요?

사라는영자의억깨너머로 책상우에되는대로흐터저있는 조희조각을내려다보 며웃는다

「또서로구면... 아이고우리호머!」

일전부터사라는 영자를호머!라고 부르난버릇이생겼다 그러면영자는 사 라를미케란재로라고 가치조롱하며웃는다

「이것 좀 읽어 보세요」
「대에서 온 편지라지요」

「네」

영자는 편지를 한 줄 두 줄 읽어 내려갈수록 그 얼굴에는 무엇이 라고 형용할 수 없는 감사한 빛이 점々 가득하여진다

「아이 구고 마워라 누가 나들이 갖치 사랑해 주리가 잊서요 사라의 마음만으로도 내병은 썩나을 줄 압니다」

영자는 어깨에 올여되인 사라의 손을 썩 쥐이며 자괴를 위하여 힘써 주는 싸듯한 우정에 못내 감사하여 두눈에는 눈물이 그렇게 하여진다

八…………二

세사람은 행장을 수습하여가고 차에서 내려다 평일은 그리 복잡하지 안든 곳이나 지리한 장마도 지내여가고 더위 도 날로 심하여지니씩 각처에서 몰여드는 피서객으로 정거장구대는 송곳 하나 세울 틈도 별도 없다 차안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를 제야 조금 편안이가게 되었다는 듯이 벤취에 몸을 기대며 두팔을 뻗치고 길게 하품을 한 번 하고 나서 창으로 고개를 내밀고 저처럼 먼져나아가려고 서드는 사람들을 나는 관 계가 업다는 듯이 멀건이 바라보고 안저었다 사라는 영자와 갖치 아버지를 썩아 이곳으로 피서를 오게 되었더라 사라에게는 피

서라는 이보다 피인(避人)이라는 편이라고 하여야 맞당할 듯하다 석왕사여관에서 서라는 용석의 일행을 마즈려고 자동차 한대가 역전에 기대리고 있다 여관주인은 반가이 뛰여내리며 먼져나아오는 용석을 반가히 맞는다

「용석씨가 이러케 오시기는 참말 의외올시다 그간 대내가 다 안녕하십니까 한번 해주서 부치신 편지는 어제야 들어왔기에 용석씨가 오신다고 했드니 은숙이는 사라만나 보겠다고 여간 겁버하지 안든 걸이요 그런대사라는 오지안소」

「참말이지 얼마만이요 그간 주신 편지는 일상 받아보았스나 별노을 틈도 업고 몸도 늘 편찬어 늘 버르긴 하면서도 아직 못오지 못하였소 이번에 도원산에 볼 일도 좀 잇고 사라도 한번 왔스면 하기에 두루 두루 겸하여 온 길이요」

「아 그러서요 나 도이 차로 원산을 좀 가려 하든 길인데요」
「그것 참 잘 되었소 그래나 도이 차에 갖치가겠소 을 때이나 좀 묵을 심치고」

두사람은 뜨거운 벗아래서 주거나 빗기니 이약이라고 하였다 여관주인도 본시 해 주사람으로서 이전은 집이 때우녀 녀 하였스나 짚었슬 때에 성색에 침혹되어 여간 잇든 것은 모다 주색에 소비하여 버렸다 그러니 사자 연사회에서도 신용을 일케 되어 그 후에야 아모리 후회하나 누구 한 사람 그를 믿어 주지 안었다 그래서 수년 간은 때우빙곤하게 지내었다 그러다가 사라의 아버지에 드음을 받아 지금은 이곳에서 여관을 경영하고 있다

사라와 영자는 무엇을 자미스릴게이 약이 하며 운전수에게 짐을 들여가지고 뒤를 딸아온다

「사라가 그재에 매우 커졌습니다 그러 이제는 잘알아보지도 못하게 되었는걸 이요」

주인은 걸어오는 사라를 바라보며 용석에게 이러케 말한다 사라도 주인을 보더니 반가이 인사를 한다

「안녕하세요 은숙이도 잘있나요」

「오! 잘있셨니 그재 매우 장성하였구나 이젠 아주 훌륭한 처녀가 되었는걸 이제야 어티고 사리창가를 부르겠나... 하하」

주인은 이전사라가 철팔세 되었을때 은숙이와 갖치 「씩거보세씩거보세 수양산고사릴씩거보세...」 하며 뛰여닫기든것을 생각하고 웃는다

「왜요 지금은 누가 하지말나나요」

사라도 그때일을 생각하고 쌀아웃는다 영자는 무슨 의미인지를 몰나 주저주저하다가 슬뻐이 사라를 보고

「고사리창가라니요?」

사라는 우습을 웃치고 「뉘별것이 안이애요 옛적은 나라적에 백이와 숙제가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

를 캐여먹다가 굴머죽었다고 하지안었서요 그런대 해주에는 뚝 갖흔 일흠을 가진산이잇답니다 그래서 그산동편모릉에 백이와 숙제를위하야 청성묘(淸聖廟)라는사당을짓코 그압해는백세청풍(百世淸風)이라고색인 큰비를 세웠서요 영자도그것은그림엽서갓흔데서 더러보섯싸구려 그래서해주어린애들이 백이숙제의청고한지조를사모하여 「씩거보세씩거보세 수양산고사릴씩거보세」 하며 노래하고놀지요 그것도지금은불어지안어요 말서한십년전에불은든 동요의한가지랍니다 그때는편자미스럽드나만...」

영자도 지금이야 그웃든뜻을알었다 그러고머리가운대로 천진란만한어린아해죽에척기여 절절게뛰노는어리였을때의 사라를마음대로그리여보며

「나도어리였을때가잇섯는지... 지금갓해서는 그리질거운시대를 지내여온것갓지도안어요 사라가뛰여단이며 노리부르는셀을 좀보앗스면...」

「그갓짓것이 뭐그리보고심혀그리세요 중! 그리보고심다면 내일산에가서 내한마디불너드리세요」

「하! 하 인제뭐그런것을불너요 그것을부르면 또다시어린애나된다면 후시물나두...」

두처녀는약속한것갓치 일제히웃는다 일행은모도다우섯다 운전수도쌀아우스면서 차를우동식이노라고 허리를쭈불쭈불하고있다 사라의아버지는주인

과갓치 원산을 향하여 되집혀져났다. 두 처녀는 전송을 마치고 돌아오니 운전대에서 기대리고 안져 잇는 운전수는 핸드레버를 쥘지며 구랏지베다를 밟으니 자동차는 격렬한 엔진소리와 갓치 흰색 소령연기를 후후뿜으며 시위쳐난살갓치 달어나기 시작한다. 길양편에서는 더운피운이 후후소사올나오며 눈이부시도록 내려쬐이는 햇빛해 조이삭나무입할것업시 모조리고개를 쳐느러느리고 조는듯이 섰고잇가 길가운대로 지내여가든사람들은 몬지를 일우기며 달어나는 자동차를 아니꼽다는듯이 눈쌀을 찌푸리고 흘기여보며 외면을 하고 돌아온다. 손을 대와다 두고 돌아오는 이삼인의 인력거군은 모자를 뒤로 젖혀쓰고 손수건으로 땀을 써서가며 「이젠나는 볼일다 보왔다!」 하는듯이 느린느린마조걸어온다. 차는 어너뜻여관압해다었다. 은숙은 반가이나와 마저들인다. 세사람은 서늘한 후원느레나무알에서 땀을 드리여가며 웃고이약이하고안졌다.

「그사이나도 퍼변하였지만 사라도 퍼달너젓구려!」

「그럼 달나저야지. 일상이런애대로만잇스면 엇더케한단말이요!」

사라는 두사람을 서로 소개한다. 영자와 은숙은 사라의 소개를 쌀아 서로인사를 한다.

「아! 지금생각하니야 글씨잘쓰신다든 은숙씨로구면」

「네! 오라요. 이 은숙씨말이애요!」

「아이고사라는 별소리를 다 하였네 공연이그런답니다. 글씨는 무슨글씨를 쓴다고 그리세요!」

「너머점양하지말고 여기잇는동안 글씨나좀가라쳐주세요!」

「아그려면오날부터 우리선생님이사네 하々」

세사람은 다갓치웃는다. 은숙은사라보다두살마지인대 삼년전엇더한곳에출가를하였다가 남편의소박을밧아 본가로돌아와잇게되었다. 은숙은한문도유여하고 성질도온순하여 가위오미구존한사람이다. 그중에도서화는 사라의 말과갓치 더욱뛰여난다. 졸동글넙적한얼굴과 맑곳말곳하살빛과 조금둥근듯한눈이 어대로보든지 귀염은가득하나 시속청년들의마음을살만한 요염한맛은조금도업다. 이것이 은숙이가소박마존 유일의조건이라고한다. 이것저것이지못하는영자는 (글씨도잘쓰고한문도유여하다는데 또인물도저러한대무엇이부족하여 저런안해를소박하여슬가...) 하며가만이 은숙의괴색을살피본다. 은숙은 그갓흔남편이라도 원망하는마음은조금도업는듯하여 좀두터운듯한입살에는 엄제든지우습뵈를씩워잇다. 영자는 자기보다도한층더쓰린지경에잇스면서도 괴로운뵈를조금도나트내이지안이함에는 마음속으로깊히항복하며 그대신에아지도못하는 은숙의남편을 미워하기를마지안이한다. 그래서일상하는투대로 참말사나히에마음은 밋을수가업서) 하고마다

경성갓뜨면 뼈가 녹을듯한 더위도 산속에서는 수목의 조화를 힘입어 그다지 심하지는 안으나 그래도 눈썰을 잔뜩 씹히고 내려췌이는 저낮이 되면 완몸이 씹이 철々 흘러 그리와 글하든 사람들을 모다 대로 버리고 그때야 비로소 산 속다운 기분이 낫하난다 산보를 맞치고 돌아온 두 처녀는 창을 잇는 대로 다 열어 제치고 한 손으로는 부채를 흔들어가며 시원한 여름물을 마시고 있다

영자는 여름곰부에서 시를 걸러 노으며 사를 건너 다보며 말을 시작한다

「나는 어제야 물터에서 인환씨를 만나 보았지요」

「그대 어제는 무엇이라고 말이나 좀 해보았소」

「하긴 말해요 길가온대서 만나셨는데... 그래도 딱딱하고 보면 외따로 떠러져

잇서서 생각하던 것 같치 그리 다정한 사람 같해보이지는 아니어요」

영자는 얼굴을 조금 붉히며 웃는다 일전 두 처녀는 놀나아 갔다가 땀에도 생각

지안 엇든 인환을 길가에서 만났다 그때의 영자의 마음은 엇더하였스랴 그것

은 상々 하기에 그리 어렵지 아니한 일이다 그때의 영자의 심리는 독자의 추측에 맏

기고만다 사라는 영자의 소개로 비로소 인환을 알게 되었다 사라가 처음 인환에

게서 엇은 인상은 매우 조치 못했다 그래서 속으로 혼자 나는 그래도 좀 취할 점

이나 있다구 영자의 총명으로 그 만 것은 분간하기에 너々한대 엇지 하여 저가 든

사나희를 그리 못 잊 처할가 사람의 정가는 것은 마음대로 못하는 까다... 하 며 영자의 마음을 의심하기를 마지 아니했다 지금도 영자가 인환이를 만났다고 하니 짜 마지 못하여 영자의 대접으로 두어 마디 문답 하였스나 속마음으로는 그리 겁버하지 안었다 마침 은숙이가 크다란 수박 한개를 안고 올라오며 웃는다 「자! 엇대요 보기만 해도 시원하지 안어요 약가 맛혜를 갖드니 하도 크기에 두 분을 드리려고 싸가지고 왔서요 엇지 무거운지 이것들 들고 오노라고 어머 니의 젖먹은 힘이 다 들었서요」

사라는 일어나 수박을 밧으며 「아이고! 꺾은 크다 석자는 되겠지요? 요놈이 왜 요리 얼음... 할가 좀 어엽

부개 생기지 안코 이것은 약싸겨 봐서는 삼원은 밧겠지요」

영자도 역시 입을 딱 버리며

「아이고 저 수박 봐... 아 마작 번부업공진회 때에 출품하였든 호박에 두곰은 너

々 하겟네 이것은 참말 삼원은 밧겠서요」

은숙은 우스며

「크기는 엔간이 큰 모양이 애요 그러나 삼원이야 무슨 삼원이 애요 약싸것은 산에

서니 짜 그것치요 그 더운데 메이 고 단 이는 생각을 하면 철십전이 뒤 그리 빗쌀 것

도 업서요」

「하긴 그래요」
 「자! 이놈을 잘나야지요」
 「은숙이는 잘느시우 우리들이서는 못잡을게」
 「그럼 잡으세요 썩……」

은숙은 소매를 벗어올리고 칼도 돌리며 사라와 영자는 뽕글뽕글돌아가는 수박의 양머리를 타누르고 있다 세사람은 수박을 하나가지고 마치고 소나하나 잡는 듯 사 북젓어린다 총대로 사람을 나오는 소리가 나드니 은순이가 사시외유리그릇을 가지고 올나온다

「어머니가 이것으로 퍼서 잡수시라고요 그리고 었던 젊은 양반한분이 영자씨게 시냐고 차져 오셨어요」

세사람은 수박을 내어놓코 은순이가 주는 명함을 들여다보니 「김인환」이라고 쓰렷시백여있다 사라는 영자를 바라보며 의미있게 웃는다

「올나오시라고 해주게나」
 「네!」

은순이는 흐르러져 잇는 빙수그릇을 거두어 들고 내려간다 은숙이도 낫선사나희가 올나온다니까 은순이 뒤를 쫓아 내려간다 사라도 그사람이 별노반잡지는 안으나 영자가 일상 잊치지 못하여 한는 사람일뿐안이라 또한편으로 보면 자

괴는 주인이 되다 심히 하니까 영자의 낫을 보든지 자기의 체면을 생각하든지 이 자리는 떠날수가 없다 사라는 응뎡이가 들석어리는 것을 가가스로 참고 안저있다 저근듯하여 올나오는 인환이는 혼이 돌아 단이는 아루마가 저고리를 모양을 내노라고 허리에 주름을 두서너번 접어 입고 향수는 썩리다가 뒤집어 쓰고 말었는지 코를 찌르는 듯시 저독하게 난다 영자에게는 잠간 눈으로 인사하고 사라를 향하여

「요전은 길가기때문에 매우 실례가 만었씁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날은 퍼더웁습니다 이리안즈세요 이편이 매우서늘하니」
 「네! 고맙습니다 이곳도 매우 좋씁니다」

인환은 재삼 사양하다가 마지 못하여 사라의 하라는 대로 영자의 멧헤가서 안는 다 사라는 벽장미다지를 열고 시럽푸담은 병을 쓰내인다

「자! 이것이나 한끔부잡수시지요 날이 매우더웁습니다」
 「고맙습니다 뭘별노더웁지는 아씁니다」

환은 사양하며 마시지안이한다
 「이것은 인환씨가 잡수셔야만할 의무가 잇는 것이 애요 하々」

「의무요? 먹고안먹는데 의무가 무슨 의무이니까」
 「인환이도 쌀아우스며 이상한말에 었지된 영문을 몰나 사라의 얼굴만 바라보고안

저있다

「그래 그의 무를 말해야만 잡수실래야요?」

「뭐 별노그렇타는 것은 안이올시다만은... 제생각가해서는 거기에의무갓흔 것은 업슬줄압니다 허々」

이 환은 앵도 빗갓흔 시를 푸 굽부들들어 조금마시고나서 다시 내려노으며

「자! 지금은 먹었습니까 먹기는 먹었셔도 의무가 무손의 무인지를 해득할 수가 업습니까 그러」

「그것은 영자씨더러 무러보세요 호々」

「영자씨 의무가 무손의 무니까」

영자는 생똥우스며

「물나요...」

「의무라하기에 먹기도 실은 것을 억제로 먹었는데 그의 무라는 것에 설명은 피차에 밀우시니 어간에 속은 것은 저생입니다 그러 허々々 좌우간 맛으 씨을 용합니다 보통과는 것은 안인 것갓흔데요」

「네! 만든 것이 애요 인환씨 오시면 들이갓다고요」

사라는 말을 마치며 영자를 바라보고 생 웃는다 영자도 우스며 고개를 숙이고 만다 인환은 비로소 그의 무라는 뜻을 새 달았다

「하々 영자씨가 저 오면 주시갓다고 만드섯단 말씀이지요 그래서 먹을 의무가 잇단 말씀입니다 그러 의무치고는 퍼혈한의 무입니다 허々々」

교제에 익숙한 인환은 누난한 구변과 묘하 몸짓으로 외방안을 우습빛으로 씩이여 놓는다. 그리 환영하지 아튼사라도 허라를 못피고 웃는다 영자도 흐르는 듯 하여 조로 자미스립게 이약이하는 인환의 입썩리만 바라보며 때々로 뜻깊흔 웃음을 띄우고 손에 든 잡지만 말었다 폄다한다 이약이 거리에 궁하여 후시조흔 것이 나 업나하고 홀금홀금 돌아보다가 영자의 손에 든 책을 보고 인환은 말을 그 리로 옮긴다

「그게 무슨 책입니까?」

「신앙의 생활이라는 것이 애요」

「네! 안재수라는 사람이 지은 것이지요」

「네!」

「요새 대단이 평판이 조흔 걸이요 얼는 보면 자 격은 훌륭하사 람입니다」

「왜 다른 것은 남만 못하고요」

영자는 이상한 인환의 말에 의아한 생각이 적지 않아 하여 뒤집혀 물어본다

「그자의 내막을 알고 보면...: 좀 이상스러운 일이 만이 잇셔요」

인환은 말을 마치며 아래 입을 세죽이 내미러 담배연기를 코썩리로 후! 하고

뿔어내보낸다

「무슨일이예요 이 약이 해주셔요
」 뭐 별노... : 그리고 그 사람의 배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할수없는 일이에요

사람은 다 갖치이상한정절을하나가지고있다 무엇이든지말하지안이하면 그럴수록 점점더듯고심히지는법이다 그선생의일이라면 조코글코듯고심흐나 또그러다가자괴마음속을 남에게들어내면엇저나... : 하여사라는 안타가운속을억지로억누르고있다 영자도역시 들으라든것을듯지못하면 엇재가삼이불죽하여견디기어렵다 그래서인환의얼굴을 들여다보며

「말삼하시구려 그이에게배우면 못들을게 뭐예요」
사라도참다참다못하여 영자의말을듣는다

「말삼하시기로 무슨관계가있셔요」

「다른것이안이라 그선생이논돈잇을때에 정부를두었다는것이예요」

「뭐요? 정부라니... :」

영자는놀내기를마지안이하며 사라를바라본다 사라의놀남은 여간영자에게 비기바이안이다 그갖치도승배하고 그갖치도사모하든선생이 정부를두었다 할은 아모라도참말갖치들이지는안었다 그래서사라는 (물을것도업시 그것

은거짓말이겟지... :) 하고 밀우어바리려고했다 그러나누가엮혀서 (안이다 참말이다참말이다) | 하며 고자질을하는듯하여 사라의마음도차차로 그편으로옮기여가게되었다 그리고어스름한달밤에 역개를마조겟고자미스럼게걸어가는 빗달은남녀의뒤스모양싸지도 눈압헤분명이낫하나되인다 사라의가삼에는 시괴하는마음이기름맛난접갓치 불뺏을일으키며 타오르기시작한다 사라는입술을씩씩물며 두주먹을러저라하고다거진다 사라의눈에는 압헤잇는두사람쫓차도되지아니한다 사라의가삼은마치 날카로운비수로 올기을기찌저듯코 그우에다가셋쌀잔고초가루를 소금과섞거섞리는듯하여 자괴도 모르게손이 가삼으로올나잔다

영자는 사라의괴색을바라보드니 짹짹놀내며물어본다
「사라 어대가편치안어요?」

사라는영자의말에 비로소자괴의압해는 두사람이잇섯든것을때맞는동시에(내모양을 모도다보왔겟네... :) | 하는생각이번개와갓치 머리속을휘 | 지내여간다 그러치안어도엇절지를모르든사라는 그우에다가붓그러운생각까지 옷집을쳐노으니사 지금은속썩안이라 얼골까지도확근확근하여진다 사라는몸시괴로운마음에 자괴몸을고만그대로 안즌채사라저버리고말엇스면... : 하며자괴의괴로운괴색을감초려고 무한이애를쓴다

失戀의 淚

마음이 급하면 말까지도 전도되는 것이 보통인 듯하다 그래서 사라도 급한 결을
에 물은 말은 채알아듯지 못하고 얼는 대답한다는 것이 자괴가 생각하고 잇는 말
이 특튀어나아온다

「나 무가놈하면 바람을 타게 되는 법이 원다」

두사람은 엇진영문인지지를 몰나 멀등멀등하여 서로 바라보고 만잇다가 사라의
말대로 영자가 먼저 입을 연다

「참말 그래요 사람도 명망이 높으면 비방이 자연 생기는 듯해요 설영 그러타하
드라도 안박사는 그 여인을 안해로 마즈려고 할 일인지지를 또 엇지아오」
뒤스 말 절반은 인환에게로 향하여 근너 보낸다

「그러기에 말이 애요 그렛스면 무슨 힘이 되겟서요 그러치안으니 짜 말이지요
네살이나 되잖아 지 잇는 것을 이렇단 말한 마티도 업시 조선으로도 망하다 심히
달아왔다고 해요 우리 우행리사가 논돈잇습때에 그선생과 갓 혼여 관에 머물너
이섯기때문에 그선생에게 대한 일은 자세히 알고 잇습디다」

인환은 자괴 말이 거짚이아니락을 입중하기 위하여 못지안는 말까지 하여 버리며
자괴 우행리사가 그것을 보왔다는 것까지 설어다가 사실이 참됨을 증명한다 두
처녀는 아모 말도 못하고 다만 일골만 서로 바라보고 잇다

성난 사람 갓 처 말도 하지안코 자썩 응그리고 잇는 검은 구름 덩이가 여기저기서 일

失戀의 淚

어나드니 저근듯하여 압산머리까지도 자욱하게 덮혀들어온다 못처럼 쓰개노
은이 약이가 도리어 파홍이 되어 인환은 무류히 담배만 빨고 안져 잇다가 하날
을 치어다 보드니 담배를 재러리에 비비여 바리고 몸을 일며 바지에 질음을 곳쳐
잡는다

「공연아 폐만 만이찌 쳧습니다」

사라도 역시 만류하고 심지는 안으나 혼이 돌아가는 말노인사한다

「왜 그리 급히 가셔요 편이 안져 말삼이나 더하시다가 시시오」

「네! 만이 놀었습니다 또 비도 내리려고 하는데: 일후에 다시 놀너 오겟습니다」
사라는 그대로 작별하고 영조만 뒤를 쫓아나아 간다 두사람의 머리가 총개 아래
로 사라지니 짜 사라는 그대로 방바닥에 폭업드러져 멧기여운다

「인환씨」

영조는 뒤를 짜라내려가다가 인환이를 붙은다 인환이는 아모 대답도 업시 그대
로 돌아다본다 영조는 인환과 맞나기는 하였스나 무엇을 먼저 말하여야 조흔는지
몰나 치마 싯만 찢었다 찢었다 하다가

「이제는 나도 그 학교를 맛쳤는대요……」

영조는 겨우 몇 마디 말을 하고는 다시 더 말이 나아 오지안어 고만 고개만 숙이고
만다 북으스레 한 기운이 두쌍에 가득이 소사울으며 평일의 영조 갓 혼곳은 하나

도업다

「참을에졸업하셨지요 한번차저가라도되어야할것을 공연이하는것도업시
밧버서 인애가되지도 못하였습니다」

영주는 죽을힘을 다 들여한말도 인환은 지내가 는말갓치힘하나안드리고 그나마
도판청을 쓰러다가 못알아들은것갓치 막그러르리고만다 영주는 인환의얼골
을 원망스럼게바라보다가 이때를일으면 다시말할회개업스리라하여 내
천길에다시말을잇대인다

「아니애요 뭐차저오시지안엇다고 그러는것이안이라……」

아모리곳개마음은정하였스나 그래도그알애말은 차아입에서나오지안이하여
이번에도역시 중관을들고만다 인환은 지금이야 겨우알아들으듯이

「네! 알아듯겟습니다 저도그일에대하여 영주씨를한번회였스면 하든길
이을시다 참발서라도알아들여야할것을……저는 그새엇던녀자와약혼하
게……」

영주는 머리에벼락을치는것갓했다 그래서인환의말이쑈나기를 기대리지도
못하고

「네! ? 약혼이요」

인환은 영주의괴상을보드니 참아말을하지못하고 다시말을돌나숨인다

「뭐 그리놀나실것이안이애요 나는영주씨의향을알수가업서 또그편에서청
혼을하기에 승낙을할가하고 주저하든중이라는것이애요 아직승낙은하지
안이……」

인환은 하날만치여다보며 모호한말을입속으로 우물우물씹어버리고만다
영주는 오날짜지안이바루전까지도(그래도설마인환씨가……) 하고 희미하
나마한자루희망의카와 가느다라한가담사랑의닷줄도 한업시넓고한업시거치
른세상을 배짱하여왔지만은 지금은그나마그기도불어지고 그닷줄도뒹어지
고보니 거치른물결이차치고라도 사나운암초를엇지피할수잇스리요 영주
는가삼이메여지는듯하고 정신이앗질하여 거의일어서고 몹쓸꿈을보는듯하다
하나씩들씩떨어지는비방울은 누가담어다붓는듯이 쏟아진다 인환은주저주저
하고있다가 비가 쏟아지는것을 조흔괴화로역여

「비가만내린다 이다음다시차저오겟습니다」

인환이는 겨우이말을남겨두고 다시는뒤도돌아보지안이하고 달음질하여간다
영주는 옷시젖난줄도깨닫지못하고 비가운대짜여점々흐리여지난 인환의뒤모
양을 바라보고서있더니 기를깨한숨을쉬며 눈물이땀이돌아떨러진다

「아하! 나는아직껏 내마음에속아왔구나!」

「이거 좀보시우 이것을내게까지보내구려 사람은씩々해요」
「그게 뭐요?」

사라는 영자의 내여미는 조희또각을들여다보다니 앓작늘내며

「에! 인환씨가 결혼을하여서요?」

「아마그런모양인듯하외다 요새는속도상하니 오라는대가서술이나한잔 어
더먹어볼가요 하하」

영자는 뜻밖게우스며 결혼피로의청자를 받기받기찌저버린다 사라는무엇
이라고위로할말이없서 二、四、八、十六、으로찌저내는 청첩만바라보고있다
사라도어제밤안박사의사진을 가위로무나물쓸듯하여버린것을 생각하며웃는
다 그리도사랑하든사람의사진을 자기손으로조각조각이내고도 무엇이부
족한지 불에다살나버리기까지했다 영자는찌저진조희조각을 손바닥으로고
깃고깃비벼서 핵내여던지며

「에라 세상일이라는것은 다이런것이다 잘가거라 네가내사랑의마지막흔
적이구나……」

두치녀는 모다입이달여붓흔듯시 아모말도업시안저있다

해가저무러가을달아 소나무그림자는점점길어지며 오리나무입속에서난 때
암이소래가 처량한가을소식을 전하여나아온다

「그래도다정한곳은괴속사요 그중에도반가운곳은 이잔디밭이구려 여기와
본지도말서 한달가량이되었지요?」
「나는얼마안되어도 영자는아마그렇게될걸이요 그세좀알아서못와보고 아
무든지세월은빨은개야 우리가석왕사서돌아온지도 말서일주일이나되었스
니……」

「과연세월은빨은것이예요 누런무뎃이나비를씩이든때가어제갓흔대 말서버
이삭이고개를소곳소곳하지안소 그러고저널은들에흰누니이싸임도 눈썹
작할새이갓지요 아!아 그장엄한경치를 다시한번보와스면……」

말하는영자의얼굴은 범계(凡界)를초탈(超脫)한보살의진면(眞面)갓치 물욕
의그림자가살아져버리고 그에목소리는 십방중생을새오치려는 석가의설법
소리갓다 오날은영자의태도가 이전갓흔번민의빛은조곰도업고 알수업서싸
듯한듯하다 병자는맑게개인하날을 우리러보고있더니 사라의손을힐잇게쥐
이며

「사라갓치나를사랑해주는사람은 이세상에다시업서요 내가오날까지목숨을
부지하여온것도 전혀사라의힘이지요 이런은혜를조곰도감지못하고……」

「왜영자는 그런소리만대구하시우 영자의마음은너머도약하드라」

「약해서그런개안이라 그저그런말이지요 그러케사랑하든 인환씨에게는

바림을 밧고 오직 하나 인물은 날마다 약하여만 가니……
영자의 얼굴에는 한층더 조용한 빛이 낮하나며

우리형님이 나를기대리시겠지요 내가가면어머님 아버지도 꺾은길버하
실설이요」

사라는너머도의외에말에 눈이둥그래지면「영자의얼굴을 쭈러지도록들여다
본다 영자는방긋이우스며

「뫼남의얼굴을그러케들여다보시우 나도오날부터는 새사람이되 야겟서요
이전의쓰린형태는 다뫼어버리고……」

「그래요 모든과거는과거대로 파뫼어버리고 압해오는질거움을 김부께마
지하여야지요 쓸데업는지난일만가지고 마음씩이고잇스면무엇합니까」

「암으렴다시일을말이애요 그건그렇타하고 내일썸은데에나가보시구려 덕
에서는아직 석왕사에잇는줄노아실터인데」

「그러치안어도집에를좀가보와야겟서요 상현씨에게대한일이마음에겟이여……
……나는참말잘못하였서요」

「잘생각하셨서요 보기에고혼장미화는 이우러지가쉽지요 그리고거기는
독한가사기잇지안어요 그대진피기드문과초는 한번피기만하면 빛은그리
곱지못하여도 썸은떠러질때까지도 입히시들어지지안어요」

「네—참말그래요 담백한과초가 요염한장미보다도 한층더사랑스러워요 선
연한장미에는 독한가사가잇는줄을 오날이야비로소알아서요」

「이번가사거든 모든것을자백하시고 마십시오 그러고썸썸내상현씨를사랑
하십시오 나는진정으로권합니다」

「그럼내일이참차로 나는집에를좀가다오겟서요 영자씨도그리말삼하시고나
도엇재괘가보고싶혀요」

해는임의산허리에걸여잇고 나무그림자는점점 두처녀의몸을덮혀온다 마침
식당에서는 식사종소리가울어나온다

「자— 인제고만들어갑시다」
「네—」

영자는 하자는대로짚어일어선다 점은빛은한경두경달어내려와서 소리업시
싸에갈어안는다 나무가지우에서지저귀는 저녁사치소리는무엇을조상하난듯
시 애처럼기울어나온다 말업시갈어가는영자는 사라의뒤스모양을바라보며
무엇을설워하는지 소리업는눈물을 흘니기를마지안이한다

九………二

영자는 몸이피곤하다고 밤에열이는음악회에도 참예하지안이하고 아홉시
도뫼되어 자리로나아갓다 사라도영자가오지아니하니싸 적지아은과흥이될

戀 失 之 淚

뿐만 아니라 낮부터 이상한 영자의 태도에 의심이 적지 않아 하여 두어 가지 음악이
 뜻이나니사 자괴는 내일 길을 떠나겠다는 구실도 폐회되기 전에 일즉 돌아왔다
 (암만해도 영자의 태도가 이상한걸 그러다가혹시...) | 누가 열해서 일너주는
 듯이 사라의 머리에 는 이 갓흔 생각이 뭇철새가 엽시 일어난다 그래서 오날 밤은
 영자를 잘감시 하여야 겠다... 하며 영자에 게 이상이 퇴이지 안으려고 전등도
 켜바리고 자괴도 일즉이 자리에 나가 고말었다 날은 몹시 더워 외근 물의 샘은
 철々 흐른다 (자지말어 야...) | 하니사 유달이 눈이 작고 감아 들어온다 그때
 도사라는 (오날 밤은 자서는 안된다) | 하며 감겨들어오는 눈을 억지로 뜨며 영
 자의 동정을 살펴 보며 누어 있다 영자는 모든 것을 다 잊쳐 버리고 고요히 잠이 깊혔
 다 (영자는 잠이 드렸구나 아마내가 공연이 의심을 하지?) | 사라는 이렇케 생
 각을 하다가 아직까지 긴장되었든 마음이 일시에 풀어지며 누가 담어다붓는듯
 시 졸임이 폴폴 날아 들어오며 머리가 묵죽한 것이 눈이 제 절노 감기여 들어온다
 (그래도 사람의 일을 알수가 있나? | 하며 눈을 다시 한번 크게 뜨며 방안을 휘
 둘러 본다 영자는 과연 잠이 깊혔다 외근 방속에 난어 두음과 졸임이 가득이 차
 있다 사라는 자괴의 몸을 자기가 채 죽일하여가며 감기는 눈을 억지로 뜨려 하였
 스나 어늬듯 고만잠의 포로가 되고 말었다...
 「아이고 그만잠이 드렸네...」

失 戀 之 淚

사라는 놀라며 화닥씩 몸을 일으킨다 발서 동녀은 환한 하여지고 방안에 있는 모
 든 것은 희미하게 퇴이기 시작한다 누가 열어노았는지 밖식한 문틈으로는 첫
 닭이 울음소래가 머리로 서 흘러 들어온다 사라는 얼는 몸을 일어 모기장 밖 그
 로 뛰어나오며 영자가 자든 곳으로 걸어가다 영자의 자리는 모다 지버언저 늦코
 영자는 어대를 갖는 지 퇴이지 안이 한다 (영자는 고만 죽었구나...) | 하는 소리가
 입술에서 나오는 것을 그대로 살겨 삼켜 버리고 (아마 세수를 하려나 간게다) | 하
 며 방안은 다시 한번 돌아 본다 세수수건은 어제 걸인대로 조곰도 변함이 없다 사
 라난다시 의심이 더 깊어 일어나며 영자의 책상을 자세히 바라 본다 교과서 잡지
 할 것 업시 모다 가지런히 갓 초워노았는대 영자가 일상에 독하든 시집우에는 조
 곱한 봉도가 하나 보여 있다 이것을 본 사라의 머리속에는 (영자가 참말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번개갓치 일어나며 저도 몰으게 뛰어가서 그 봉도를 집어 본다 거기
 는... 사라씨 압해 영자... 라고 써여 있다 사라는 급한 걸을 게 읽어 볼새 도 업
 시 흐느러진 우맙시도 고치지 못하고 웃고름을 푸러 헛천쳐로 업드러 질듯이 뛰
 여 내려간다 뛰여는 내려왔스나 엇지 할지를 아지 못하고 그대로 사 감실문을 쑥
 드린다 오션생은 아직 잠이 깨이지 안이 하였다가 사라의 문쑥 드리는 소래에 놀나
 일어나며 문을 연다
 「선생님 큰일났서요 영자가 죽었서요...」

「뭐? 영자가 죽다니?」
 「이거 보세요」
 오선생도 어안이버그하하여 다시난 아모대답도 못하고 사라가유서를 뜻어
 잃어내려간다

： 쓰리다 쓰리다 못하여 아리기까지한 이 괴로운세상의 박해는 날이갈수록 점점
 심하여져서 아모리악아어나아가려하여도 지금은더 오래대항하여나아갈 용
 의조차살어지고말었습니다
 사라씨! 나는가려나이다 슬픔도없고 괴로움도없는 먼나라로가려나이다
 우수 비애 박해 이 모든것이업는 어머니님과아버지가게시고 또사랑하는
 형이잇는 재가노래하며웃고 셋듯한괴운이일상흐르고잇는 그질거운
 나라로나는가려하나이다
 풀땃해맷치잇는이슬보다도 한층더밋을수업는 썩은실낱같은 이 세상목숨
 은 한업시홀니가는막근물결에 홀이여바리고 뭣침업시질거울고 다함이
 업시살어잇는 저 세상목숨으로 밧고려하나이다 그맑은물결이 티끌하나
 업는 그맑은물결이 이 괴로운세상을떠나서 저 질거운나라로가는 유일
 의독목교이지요? 가려면근너지안을수업는 오직하나인질이안이겟서요 나

는그길로지금걸어가려하나이다
 이독목교를건너 저 질거운나라로가는것을 이쓰리고괴로운세상사람들은
 그것을「죽임」이라고일홍짓고 저마다그것을무서워하지안습닛가 그러나사
 라씨! 모든사람이저마다쓰리는 이죽임이라는것을 억지로이세상말을빌어
 설명할것갓흐면 그것이곳「삶」이라고 나는생각합니다 그래서나는 이
 우수 비애 박해로가득이채워잇는 쓰린세상을떠나 장차한업시질거운저
 세상으로 가려나이다 아! 아! 나는얼마나갑부겟습니까 그러나그러나
 오직한가지 멀이떠나가는이마음에 못을박어주는것은... 오직사라씨당신
 뿐이애요 그러케도이몸을사랑하여주시는 당당한분별이애요 지금이붓을
 들고서도 고요히잠들어잇는 당신의얼굴을 몇번이나들여다보왔겟습니까
 그것은내가말하지안어도 다정하신당신의마음으로 너너히밀우어아실줄압
 니다 모든인연을쓴어버리고 장차멀이떠나갈몸이 무엇을슬퍼하며 무엇
 을한탄하릿가만은 다정한이얼굴을대할도 이번이마지막이구나... 하고생
 각하니 모든감정이일시에소사올나 하염업시흐르는눈물노 이세상의외로
 운 형해를가리고잇는 더러운웃기를 적심을마지안이람니다 그래서나는
 이사진한장을 괴로운세상에왔든괴럼으로 내가삼안고가려하나이다 나
 는어머니 아버지에게 이갓흔세상에도 당신갓 다정한사람이잇다고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나이다
 나는 사람을 원망하지 안코 또 이 세상을 저주하지 안나이다 단 지이 괴로운 세상
 에 잠깐 단겨 가는 이 몸의 운명이 라고 단념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외에는 별 노
 써 두는 것도 없싸오니 원망은 아니오나 혹시 그 사람을 일 후에라도 만나 시 거
 든 이 갓 혼말이나 전하여 주십시오 또 오선생님 제도 사라 씨 입으로 전하여 주
 십시요
 마지막 으로 한 가지 만 더 바라옵는 것은 부되 상현 씨와 조혼 인연을 매 뜨 시 사
 영원이 뭇 침업는 행복을 만이 놀이 시 기 만 ..
 아 조가는 길에 영자는

하염 업시 흘너 내리는 네 줄기 눈물은 마지막 으로 남겨 두고 간 영자의 유서에 뚝
 뚝 떨어져 내려 온다 ..
 이리 하여 뚝 업는 초목도 질거 워하는 김분 봄 빛을 바다 뚝 갖치 밧긋거리 든 두
 가지 북사 뚝은 한가지는 열매 도 때져 보지 못하고 짜듯 한 봄 빛을 가득이 먹음은
 체로 풀뚝헤이 슬갓치 사라져 버리고 말 었다

十

여러 사람들은 모 다 고요히 잠이 들어 었다 사라 도 췌 취에 몸을 기대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고만 잠이 깰 박 들 어 버리고 말 었다 밤은 어 느 때 나 되 었는지 몸이 으

스스 하여 허리를 쏘부리고 몸을 돌쳐 누으니 짜 그리 침지도 안코 머리 도 편 안한
 듯 하여 흐릿한 정신에 도 이상하다 .. 하면서 편 안한 김에 다시 잠이 들 었다
 잠결에 괴적 소리가 은은이 들 인다 (이 번은 어 댕가) 하며 몸을 일라고 하는대 괴
 차는 또 달 어 난다 (아 마 아 직 멀 었 겠지) — 하며 잠에 취 하여 그대로 들 어 눕 다 가 (그
 래도 그러 다 지나 치면 ..) — 하며 찢 러 지 지 안는 눈을 억 지로 비 비며 껴 고 일 어
 나서 훗 르 러 진 머 리 털 을 두 손 으 로 글 거 을 이 며 (여 기 가 어 댕가 ..) — 하며 창
 박 글 내 여 다 본 다 식 샘 은 밤 빛 에 아 모 것 도 뵈 이 지 안 이 하고 흐 릇 흐 릇 하 든 날 도
 지금 은 비 가 내 리 는 듯 하여 물 방울 이 하나 씩 들 씩 되 여 가 늘 고 도 쏘 불 쏘 불 하 길 을
 내 이 고 창 유 리 로 믹 스 러 저 내 려 간 다

「아이 고 비 가 내 린 다 이 렷 줄 알 었 드 면 내 일 아 참 에 나 찢 날 것 을 .. 영 자 가 그
 러 케 되 여 혼자 잇 기 실 은 김 에 찢 나 트 니 날 짜 지 도 성 화 를 대 네」

사 라는 이 갓 혼 자 말 하 며 (혹 시 비 나 맞 지 나 안 으 려 나 ?) — 하고 다시 창 열 호 로
 갓 가 이 가 서 박 갓 을 내 여 다 본 다 그러 노 라 니 짜 무 엇 이 자 괴 몸 쏘 고 가 는 대 로 딸
 아 오 는 것 이 있 다 (이 게 무 엇 일 짜) — 하고 돌아 다 보니 난 데 업 는 노 서 아 제 담 요 한
 개 가 자 괴 의 발 치 에 덮 혀 었 다

「이 게 웬 것 이 야 ?」

사 라는 이 상 이 여 거 비 로 소 자 괴 의 주 위 를 살 펴 본 다 창 압 해 는 웬 풍 침 짜 지 되 여

失戀의 淚

있다 사라는 그제야 악가머리가 편안하여 지는 사뭇을 깨달았다
「아! 이 내가 꿈을 꾸고 있나... 이것이 날 데가 없는데」

사라는 이상하여 자괴품을 살피본다 아모리보아도 꿈은 아니다 점점 이상만 하여져서 두리번두리번하며 좌우를 살피보니 자괴의 압해 있던 사람이 자리를 정한듯하여 조금안손가방하나와 잡지한권이 펼쳐져있고 그 옆에는 맥고 한개가 되어있다 그 주인은 어대론지가 고압스나 갈데업는 사나희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모르는 사람이면 덤쳐줄이 도업고 알기는 아는 사람인데 날을 알사나희가 누구일가?」

사라는 점점 의문이 첩첩하여져서 옆해되인 손가방을 살피보니 그 옆마구리에 는 영자로 Y.S.H 라고 써워있다

「와이. 에스. 에취?」

사라는 아모리 지어붓쳐보와스나 암만해도 알아낼수업다 사라는 고개를숙이 고안져 이리저리 생각하여보다가 문득요삿을보니 옥색주란사로 참대입을 수노은 것이 있다

「오! 상현씨로구나 윤상현을 약하면 와이. 에스. 에취지 그런대어대를 갖 다오대속싸 만나기는 참이 잘맞았는데 원! 무엇이 라고 말을 하노? 오거든

失戀의 淚

락앵기고 「모든것은 내 잘못이니 용서해주세요요」 할까? 에라 그대로자는 체하고잇스면 사리원서때워줄터이지 그때잘말을 해야

사라는 그대로 다시누으며 혼자웃는다 그러나가삼은 몹시 두근거린다 저 근듯하여 변소문소리가 나드니 누가이편을 향하여 걸어온다 사라는 천연스럽게 눈을 감고누어있다 그 사람은 사라가 누운압해와안드니 흘너내란요를 축여 덤쳐주며 혼자말노

「아직생장이 깨이지안었다... 아 이배개 바람이 왜 빠져슬가?」

그사람은나사를 씹드니 사라가 베인채로 입을 대고 바람을 불어넣는다 목소래싸 지들으니 갈데업는 상현이다 그래서직짓머리에힘을들어 차차로내려누르니 상현은입김을다하여불어넋타가 힘이 다하여지며 「꽈」하며 고무대를하목음마 시고 입을얼는찌이고일이난다 풍침은 「피!」하는 소리와갓치 차차로줄어들어 내종에는남적하여지고만다 사라는비로소잠이깨이는것갓치 눈을슬그머니뜨며 한번생똥하고우셨다 상현이도잘아우스며

「나는 또잠이나들었다고...」

사라도 마조우스며 일어나안는다

「자긴왜요 내가자는줄아섯세요 나는발서때여서요 그리고이요를보고 발 서당신이 하신술을알아섯서요」

「요를보고었지안단말이요」

「아이고말서잇치선결세 왜내가수노아들이지안었서요 이것보세요 아직빛
이낱지도안었는대」

상현이는 사라가가르치는 참대입을들어다보며

「아아참 아직햇빛이낱지안었구려 그러나...」

상현은 무엇을말하려했는지 「그러나」 하고난말을윈코만다

「그러나어대를갓다오세요 날도흐리고밤에내리면었저나... 하엿드니 마침
잠만나서요」

「사라씨는 여기가어딘줄아시고그리시우 말서황주를지나왔는대...」

「네! ? 그럼말서사리원은 지났게요?」

「에! 내가사라원서차에올느 짜 사라씨는곧이잠이들었씀디다 처음에는
누구인지몰아 그대로이다가 화주를지낸뒤에야 비로소알어서요」

「아이그이걸었저나 자지말이야... 하다가도그만몸이곤하여 참저! 영자가
죽었서요」

「네! 에? 영자씨가죽었서요」

「네! 고만죽었서요 그런대상현씨난어대짜저가서요 평양이요?... 나도
가치가야 구경도좀하고오게」

「안이요 나는좀머리가게되었서요 중화에내리섯다가내일먼저 돌아가시
지요」

「그러어대짜저애요 날대리고가지안으시려고...」

「그럴이가잇서요」

상현은 자기가난곳을중내 말하자안이한다 사라난이상하여 창턱에뇌여잇
는상현의차표를 누가췌치러는듯시 얼는집어다가들여다본다

「에! ? 봉천이요」

상현은머리를 숙이고안저잇다가

「에! 거기까지좀불일이잇서요」

말을마치며 상현은기글개한숨을쉬다

입으로는 봉천차차간다고 대답하여스나그실은 봉천짜지가안이라 상해짜

지가려는길이다 상현이가 이번길을떠난것은 한마디로씩죄말하자면 첫

재론자과의피로움을 잊치려는것이요 둘째로는 자과의목숨보다도 더중하

게사랑하든 사라의장내나힘부스럼게 하여주리라는것에지내지못한다 상현은

상현은 간봄에사라가대겨간이후로는 거의열병환자갓치내어왔다 상현은

봄이다가고 여름이반이나되도록 약가풍침에바람을넋다가 우는것외에는 한

번도우서본적이없다 이것으로만보와도 얼마나가삼을래우고지내왔는지 가

히밀우위 짐작할 수가이다 상현이가 처음으로 사라의 마음이 변한 것을 알았을 때
 는 여간가삼이 쓰리지안었다 그래서 사라를 원망하기를 마지안이했다 그
 러나 상현은 그만것으로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너머도 천막하다는 것을 깨달은
 동시에 자기의 마음이 남자답지 못함을 후회하기를 마지안이하며 그 후부터는
 사라의 일은 일절 잊어버리고 대신 갓혼 주인 내의 은혜나 갑호리라고 생각해서
 나 그럴수록 사랑의 모양은 뇌속에 누러 붙은 것 같아야 아모리 지우려 하나 지워
 지수안었다 그래서 혼자 가슴에 감초와 두고 애를 쓰다 쓰다 못하여 차라리 집
 을 떠나 버리고 말이라고 고쳐 지결심을 하게 되었다 만일 누가 요새 사라의 누우
 치는 마음을 바늘땀만 치라도 알이여 주었드면 상현은 비록 바늘땀만 치적은 일이
 나 바늘땀만 치예민하게 자기의 모든 괴로움을 잊쳐슬 것이다 짝아서이 갓혼길
 도 떠나지안어슬 것이다 그러나 귀신이 안인이 상에야 자기를 위하여 괴로워하고
 있는 사라의 마음을 조금인들 알사 닭이 이스라 상현은 지금이라도 사라의 마
 음을 알것갓흐면 이왕 떠난 길을 멈추지는 안는다 할지라도 김부게사를 다사안
 어 줄 것이다

「그런대 봉천은 왜 가세요?」
 상현은 잠간 동안 묵々히 안저잇드니

「이왕 모든 것을 다 저버리고 떠날이 떠나가려는 대들어서 야무엇을 말하지안이

하겟소 나는 이번 봉천까지 가는 것이 안이라 상해까지 가려고 떠난 길이었
 라 의어르신네는 이왕 집에 계시지안으니 짜 혹시 물으나 집에 계시신 사라의 어
 머님에게도 이러할 말한 마디도 들이지 못하고 떠났소 이런 말을 들으면 사라
 씨는 혹시 무정무치한 사람이라고 책망하시겟지요 만은 만일 내가 난다고
 하면 그대 로가라고 하실 것이 잇겟습니까 그래서 마지못하여 그런 줄은 췌나
 이 알면서도 인사한 마디 못드리고 그대 로 떠나왔소

잔뼈가 국도 록 문하에 끼쳐잇스며 원갓 사랑을 다 바다 오다가 급기야 떠날 때는
 인사한 마디 못드리고 보니 그대 로 인형을 쓰고 오장이 갓 추잇는 이상에야 가
 삼이 엿더 하겟소 만은 그갓 처라도 떠나지안으면 안 될 경우에 잇는 내 처지를 깨
 달고 보니 단지한 시간이라 도 속히 떠나 대신 갓혼은 해는 보답지 못할 만정 괴
 로운 심여나 덜어 들이는 것이 내 도리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소

일 후에 후시점 지나 안코 돌아 오게 되면은 그때에 이 은혜는 보답하여 들일 가
 합니다 사라 씨도 두분을 뵈시고 장내의 만은 행복을 바드십시오 뜻안인 뜻
 에서 이갓 처만나 이마름이라도 내 속을 말하게 됨을 나는 무엇보다도 김부께 할니
 다 자귀를 변명하려고 할은 안이외다 만은 십여 년간이나 갓 처자라는 정니로
 돌아가서 거든 이런 말이나 전하여 주십시오」
 그러치안어도 자귀의 잘못을 뉘우치고 모든 것을 사례하려 든 사라는 자귀의 일

생을 더 버리고 짜지 이 몸을 사랑하여 주는 것을 보니 한편으로는 뼈가 녹듯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기가 한량이 없사 느릿느릿 흘러나오는 상현의 말소래짜지도 가삼을 폭폭 썰이는 비수 갖치 날카롭게 들이며 모든 것이 모다 자괴를 원망하는 것 같기만하다 사라는 참다 참다 못하여 후후 웃기가 며운다

「상현씨 저는 이번 길의 뜻을 자서이 알어요 단지 한번만 용서하여 주세요요」
사라는 겨우 말을 마치고 나서는 그만 상현의 가슴에 얼굴을 폭과 못하고 다시는 말도 일우지 못한다 상현은 천연이 우스며 사라는 위로한다

「허허 그것은 사라는 대단한 오해지요 나역시 한낱 사람인 이상에야 사라는 때문에 내 몸을 가고 오고하겠소 이왕 잊지 잊지 하다가 이제 상에 태여났스니 짜 나도 남 갖치 사람 노릇이나 좀 하여 볼가... 하고 배우려 가는 것에 지나지 못하지요 결코 사라는 원망하지는 안씀니다」

차난길게 소래를 질고 웃득슨도

「자! 일어나시지요 이곳은 중화니 짜 쌀이 내리 심시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작별입니다 그러 심여 년 동안이나 친형제 갖치 내오다가 이 갖치 떠나게 되니 마음에 서어 하기가 비길 데 업소 그러」

사라는 내리 권영 일어나지도 안코 점々 웃기여 울기만한다
「자! 어서 일어나시오 그러다 차가 또 떠 가면 잊덕함니다」

「그래도 조아요 이왕지 내 친결 평양 짜지만 갖치 하고 가겠셔요」
「게 짜지나 가시면 무엇을 합니 짜 어서 내리 서야지요」
「그래도...」

괴차는 다시 음지기 시작한다 상현이 도이제는 할수 업서 그대로 묵묵히 안저 있다 차는 평양을 바라보고 비를 제치며 어두움을 쓸코 기운 차게 달여 난다 사라는 눈물에 어리눈을 들어 상현의 얼굴을 쳐다 보며

「상현씨 나는 엇더 캐하면 조아요?」

「말 엇더 캐한다고 그리서 우 평양서 내렸다가 내일 댁으로 돌아 가시지요」

상현은 사라의 말하는 뜻을 알아 들었는지 또는 못알아 드렸는지 이 갖치 대답한다 「아! 아! 이 몸은 의지 할 곳이 업스니 짜 자연 그리로 가게 되겠지요」

사라는 말을 마치며 아모정 신업서 그대로 쓰러지고 만다 상현이 도 자괴 말이 너머 과거한 것을 깨닫고 뉘우치기를 마지 안이 하며 쌀아서 사라는 깨대한 사랑의 시체가 다시 차차로 소생하여 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자괴의 해를 잘나 버리고 도 심혀진다 사라의 어깨는 치마 어깨의 아름다운 곡선에 가리어 늦길 때 마다 을 낫다 내렸다 한다 상현은 미안한 마음에 설이여 자괴도 물으게 손을 사라의 가슴 아래로 नी어 안어 일으카며

「사라씨 나는 과연 잘못하엿씀니다」

「안이예요 잘못하실것이 무엇이요 저는 상현씨의 사과를 밧을몸이 못되요 제게는 그갓흔말을 들을 권리가 밧서 업서진지가 오랫동안입니다 다시는 상현씨를 사랑할……」

사라는 늦기여나아오는숨결에 시작할말도 뜻을마치지 못하고만다 상현은 한층 더 후회하기를 마지않이하며

「사라씨 모다 용서하십시오 나는 당신의 참된 마음을 아작까지 몰랐서요 그러나 나의 마음 가운데 잇는 사라씨는 일상 나는 사랑하고 잇섯서요 지금은 그사라씨가 당신인줄을 나는 의심치안이 합니다 네! 사라씨— 상현은 사라의 몸을 두어번 흔들고나서는 슬픈빛이가득한 사랑의얼굴을들여다본다

「네— 나는 용서해들일것만 잇스면 얼마든지 당신을 용서해들이게서요 그러면 당신도 저를 용서해주시겠서요?」

「나는 사라씨를 용서한지가 밧서 오랫동안 지금와서 다시 무엇을 용서합니사 자— 어서 진정하고 웃난얼굴을 보여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모든것을 다시쳐바리고 다시나를이전갓치 사랑 해주시겟단말씀이지요?」

「네— 나는 당신을 언의때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사라는 눈물에서진얼굴에 우슴빛을 나타내며 입술을 썩죽이내민다— 언젠가꿈에 하든갓갓치— 그리고는 「나를 사랑하시겟다면 이 입술에 입마쳐주세요— 하는듯시 상현의얼굴을 말동하고치여다본다 아참이슬에 망뎡거리는해당화라드니 눈물저진사라의얼굴은 과연해당화이상으로 아름답다 상현은마치체면술에걸인사람갓치 사라가하는대로 자기도갓치입술을 썩죽이내밀며 두팔노사라의허리를안어일으킨다 두남녀는힘껏셔안었다 마즌편의자에서 썩벽— 즐고잇든 노인한분이 이것을바라보드니 무엇이그리갑분지 빙그레하고웃는다 차는썩거적소래와갓치 풀넛르흙에다었다 창박그로난 역부에 목메인소래로 「헤이쥬—」 「헤이쥬—」 하며왜치고지내여잔다

「자— 이제는 참말차별이구려」
「지금가시면 언제나 돌아오세요?」
「한이삼년후이겟지요」

「그재한번도 왔다가지지안어요?」
「글세요 아마 좀어려울듯합니다」

두남녀는 의논이나한드시 두팔을버리고 한번씩셔안드니 입술을마조대인다
「자— 어서내려갑시다」
「네— 부되몸조심만이하세요 그리고이것은……」

사라는상허의손사락에 무엇을끼워주며 이렇게말한다

「네-네-알어듣습니다」

차는「피-」하고종괴보내는소리와갓치「후」「々」하며 다시막그러져나아간다 상현은얼는몸을뛰여차에오르며

「사라씨 안영이가십시오 그러고내일곶돌아가시오」

「네-안영이가세요」

두사람은 다갓치아모말도엄시 점점머리가가는모양만 서로바라보고서있다 차는의적쇼를내며구외로나아간다 사라의정신은 사라저버리는상현의몸을살아 다라나는의차에살이어머닐니복죽나라로 달어난다

동천은 흰하여지고 벗나는해가 썬을나올것을 예언하는듯하다

……(哭)……

改 正 實 價 一 覽

哀情 金玉緣	全一冊	金二十五錢
陰陽 三百星	全一冊	金二十五錢
醒世 鍊光亭	全一冊	金三十錢
節孝 松竹	全一冊	金二十五錢
愛情 芙蓉軒	全一冊	金二十五錢
言情 芙蓉潭	全一冊	金二十五錢
婚事 美人圖	全一冊	金二十錢
理想 金剛聚遊	全一冊	金二十五錢
愛情 玉麟夢	全二冊	金九十錢
愛情 玉鸞聘	全一冊	金二十五錢
軍事 小說 孫龐演義	全二冊	金三十錢
歷史 小說 隋唐演義	全一冊	金三十五錢
鮮漢 雙文 西廂記	全一冊	金五十五錢
感義 小說 江上月	全一冊	金五十五錢

古代 王樓夢 全四冊 金一圓

金山寺夢遊錄 全一冊 金二十錢

古代 小說 雙美奇逢 全一冊 金二十錢

悲劇 小說 百年恨 全一冊 金三十五錢

寫情 小說 秋月色 全一冊 金二十五錢

奇聞 美談 青野彙編 全一冊 金三十五錢

偵探 小說 波濤上船 全一冊 金四十五錢

新 小說 沙村夢 全一冊 金四十五錢

昭和六年十月二十日 印刷
昭和六年十月三十日 發行

失戀의 淚 定價五十錢

發行所 兼著者 高 丙 教

印刷所 兼著者 朴 仁 煥

印刷所 大東印刷所

發行所 滙東書館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十七番地
振替口座 京城七一一
電話 光化門一五五
私書 函 四三八



改 正 實 價 一 覽

蒙學二千字白紙版	全一冊	金五十錢
訓蒙輯要	全一冊	金三十錢
東醫壽世保元	全一冊	金八十錢
增補註解明心寶鑑	全一冊	金三十錢
新編國隱集	全一冊	金五十錢
精選八大家	全一冊	金七十錢
新訂育兒法	全一冊	金二十錢
高等日語番戰	全一冊	金三十五錢
增附圖字典釋要	全一冊	金一圓三十錢
學徒指南	全一冊	金二十錢
伯林巴里	全一冊	金二十五錢
諺文片紙法	全一冊	金三十錢
懷中常用寶鑑	全一冊	金三十錢
山林經濟洋裝	全一冊	金二十錢
醫門寶鑑洋裝	全一冊	金二十錢
同	全一冊	金一圓五十錢
懸吐六韜直解	全一冊	金五十錢
懸吐孫武子直解	全一冊	金二十五錢
增補海東詩選	全一冊	金一圓三十錢
一見能解店畫周易	全一冊	金一圓
懸吐淑香傳	全一冊	金二十五錢
海東名家尺牘	全一冊	金一圓
新校天機大要	全一冊	金八十五錢
新校重訂方藥合編	全一冊	金九十錢
精選日語獨學	全一冊	金五十錢

日鮮作文千字	全一冊	金三十錢
日鮮高等流行尺牘	全一冊	金八十錢
無先生英語獨學	全一冊	金五十錢
刪正五倫行實	全一冊	金五十錢
新編動物學	全一冊	金四十錢
農業大要	全一冊	金三十錢
養蠶新法	全一冊	金二十錢
桐樹培養法	全一冊	金十錢
中等算學	全一冊	金一圓
新刊七書集註	全七冊	金五圓八十錢
小學	全一冊	金一圓
蔬菜栽培法	全一冊	金五十錢
接木新法	全一冊	金三十錢
日韓會話辭典	全一冊	金九十錢
新纂諺文家庭簡牘	全一冊	金三十五錢
單方經驗新編	全一冊	金四十五錢
秘製經驗新編	全一冊	金一圓廿錢
懸吐女子寶鑑	全一冊	金六十錢
註解	全一冊	金三十五錢
增補註解尺牘	全一冊	金八十錢
書法真訣	全一冊	金四十錢
無雙諺文尺牘	全一冊	金一圓六十錢
醫方新鑑	全一冊	金三十錢
現行法令新編	全一冊	金一圓六十錢
海岡蘭竹譜	全一冊	金一圓
李少南書帖	全一冊	金一圓

醫門須知	全一冊	金二十五錢
朝鮮名勝詩選	全一冊	金九十錢
耽羅紀年	全一冊	金五十錢
老子道德經	全一冊	金二十五錢
通鑑諺解	全十五冊	金六圓五十錢
懸吐古文後集	全一冊	金一圓三十錢
古文前集	全一冊	金七十錢
史略諺解	全三冊	金一圓十五錢
家庭寶鑑	全一冊	金五十錢
懷中完全尺牘	全一冊	金五十錢
原本四書集註	全六冊	金一圓七十錢
歐諺草楷真蹟	全一冊	金五十錢
篆隸八分楷行	習字帖全三冊	金一圓二十錢
草六體筆帖	全一冊	金二十五錢
短編古今奇談集	全一冊	金二十五錢
楚漢鴻門宴	全一冊	金三十錢
風塵鴻門宴	全一冊	金三十錢
古代蘇大成傳	全一冊	金十五錢
小說	全一冊	金十五錢
新小三快亭	全一冊	金二十五錢
說	全一冊	金二十五錢
古代增修香傳	全一冊	金三十五錢